

물동량 급감 서귀포항 ‘사활’

도, 국비 482억 투입 재정비로 무역항 활성화 계획
물동량 제주항의 1.4% 수준… 최근 4년 새 42% 감소
선사·하역 업체도 줄어 ‘악순환’… 마스터플랜 현실

제주 무역항인 서귀포항의 취급 화물 물동량이 크게 줄고 있다. 2021년 대비 2025년 물동량이 약 42% 감소하면서 항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9년까지 추진 계획인 재정비 공사를 통해 활력을 모색한다고 밝혔지만 물동량이 집중되고 있는 제주항과 비교할 때 유류비 증가 등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서귀포항 물동량은 32만7352t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무역항인 제주항 연간 물동량(2413만7192t)의 1.4% 수준이다. 연안항인 애월항(137만7990t), 한림항(74만7191t), 성산포항(38만6593t), 화순항(36만7026t)과 비교해도 적다.

서귀포항 물동량은 2021년 56만

4345t에서 2022년 55만5735t, 2023년 45만7881t, 2024년 48만3381t으로 대체로 하락 추세다. 이 기간 서귀포항 선사는 5곳(2022년)에서 올해 2곳으로 줄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거나 주항을 다른 연안항으로 변경한 결과다. 같은 시기 하역사도 10곳에서 7곳으로 감소했다.

제주도는 물동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리적 불리함을 꼽는다. 제주항 대비 약 111km를 추가 운항하면서 선박 유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형 선박이 접안하기 어렵고 자동화물 선적이 안되는 등 화물 처리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이에 제주도는 국비 482억원을 투입하는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를 진행해 대형 선박 수용 능력이 확보되고 안전한 입출항 환경이 갖춰

지면 경쟁력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재정비 공사는 올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입항 가능 선박을 5000t급에서 7000t급으로 상향하고 선박 안전을 위해 선화장을 235m로 키우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적장 확장 등으로 화물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 공사 사업 대상에는 여객부두 1선석도 들어 있다. 일각에서는 2012년 준공 이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서귀포항여객선터미널, 새롭게 건립이 추진 중인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등을 포함해 서귀포항의 이점을 살린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동량이 단번에 크게 늘지는 않겠지만 재정비 공사로 여건이 조성되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담당 부서가 다른 서귀포항 시설의 경우엔 전체적인 향후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지난 1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마련한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저출생 시대 출산·양육 부담 낮춘다

수놓음돌봄공동체 최근 5년 95% 이상 높은 만족
돌봄 부담 완화로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선택 영향
참여자 90% “일상·긴급 돌봄 어려움 해소 도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개인의 몫이어야만 할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돌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제주도의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이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 사업이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등 지역 사회 돌봄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 사람들이 바쁜 농사철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의 힘을 모으던 삶의 방식이 오늘날 돌봄과 양육 현장으로 이어지며 저출생 시대에 둘째 아이 이상 출산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다람쥐숲학교’란 명칭의 수놓음돌봄공동체, 7가족 7명으로 시작한 이 공동체는 각 가정에 둘째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나면서 얼마 후엔 14명이 된다. 지난해에만 두 명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고 머지않아 또 한 명의 새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2025년 수놓음돌봄공동체 성과 공유회에서는 ‘064’ 팀의 사연이 화제였다. 수놓음돌봄 덕분에 둘째와 셋째까지 낳았다는 이 공동체의 양육자는 아이들에게 봄, 여름, 가을이란 이름을 차례로 지어줬는데

“넷째 임신으로 우리 가족의 사계절이 모두 완성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해 수놓음돌봄 참여 양육자 중에는 일하는 여성(시간제 포함)이 81%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수놓음돌봄이 가져온 아이의 변화(복수 선택)로는 문화 활동 증가, 사회성 발달, TV 시청·휴대전화 이용 감소 등이 꼽혔다. 양육자가 느끼는 변화(복수 선택)는 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있다는 안도감, 독박 육아의 고립감 해소, 육아 정보 공유로 육아에 대한 두려움 해소, 재능 기부·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자존감 상승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자녀 돌봄 도움 정도를 2020년과 비교했을 땐 ‘일상·긴급 돌봄 어려움 해소’ 응답률이 37.8%에서 90%로 5년 사이에 2.4배 올랐다. 이는 공동체 내 신뢰·소통·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놓음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음을 보여준다.

지난 5년간의 사업 만족도가 거의 매년 95%를 웃도는 수놓음돌봄 운영이 올해는 200팀까지 확대된다. 전년 105팀에 비해 지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지역 순회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 제주도는 오는 9일까지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체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0~21일 서귀포시, 22일과 26~28일에는 제주시 지역 심사(면접)를 벌인 뒤 3월 3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3월 6일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3월 13일에는 2026년 수놓음돌봄공동체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모집 대상을 중학생 돌봄 자녀 가구까지 포함시켰다. 영유아와 초·중학생 돌봄 자녀를 둔 3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 자조모임이면 수놓음돌봄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 지연 등 장애아동이 참여하는 경우엔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각 공동체에는 연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강문실 센터장은 “처음 공동체를 만난 많은 양육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양육 방식이 충돌하지는 않을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는 않을지 걱정을 한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임신과 출산, 아이의 성장을 함께 경험하며 그 망설임은 조금씩 신뢰로, 경계는 관계로 바뀌어 왔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5월 28일까지…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전기안전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신고와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치 신고·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은 설치 장소 관계없이 모든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충전사업자가 아니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주차면 수 50면 이상인 공공건물·근린생활시설·의료·숙박·업무시설·공용주차장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주차면 수와 관계없이 종교시설·노유자시설·공장·창고시설 등에 설치된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공사 착수 전에 충전시설 관리자가 제주도 우주모빌리티과에 설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위치·수량·

용량·운영자가 변경될 때도 신고가 필요하다.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해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보험은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완료 후 전기 공급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충전시설도 제도 적용 대상으로 5월 28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소범기자

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프라 구축 본격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올해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분산에너지

모델은 가상발전소(VPP) 기반의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새로운 수요혁신 기술(P2X) 등 세 가지이다.

V2G는 지난해 12월부터 카세어링 쏘카터미널을 구축하고, 터미널

내 V2G 전용 구역을 조성해 양방향 충전기 15기를 설치했다. 현재 V2G 전용 20대 차량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4월에는 도민 35명을 대상으로 양방향 충전기 70기를 추가 설치해 시범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실제시공이미지]

[건축주최신송이부포진대]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실제시공이미지]

[건축주최신송이부포진대]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치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